

워즈워스의 고드윈주의

朴贊吉

1. 고드윈주의자 워즈워스

워즈워스가 윗순주교(Richard Watson, Bishop of Llandaff)에게 보낸 미출판 「공개서한」("A Letter to the Bishop of Llandaff on the extraordinary avowal of his political Principles contained in the Appendix to his late Sermon by a Republican," Wordsworth, 1974. 이하 「공개서한」이라 칭함)에서 과격한 공화주의적 신념을 피력한 것은 그가 프랑스에서 돌아온 직후인 1793년 3월이었다. 그 「공개서한」은 비록 출판되지는 못했지만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와 토마스 페인(Thomas Paine)의 프랑스혁명 논쟁이 촉발한 이른바 “팜플랫전쟁”의 한 부분이었고(Cone 96-113), 이것은 당시의 워즈워스가 단지 공화주의적 편향을 가진 한 이상주의자였을 뿐만 아니라 영국의 현실정치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진 개혁운동가이기도 했음을 짐작케 한다. 그러나 귀국이후 워즈워스의 실제생활은 실망스러울 정도로 조용한 것이었다. 워즈워스는 1793년 여름 그의 친구 윌리엄 칼버트(William Calvert)와 함께 와이트(Wight)섬에서 약 한 달간 머물렀고, 뒤이어 웨일즈(Wales)까지 예기치않은 도보여행을 했다. 워즈워스는 북부웨일즈에 있는 리차드 존스(Richard Jones)의 집에서 한동안 머물다가 크리스마스경 그의 외삼촌집인 화이트헤이븐(Whitehaven)을 방문했으며, 1794년 2월에는 할리팩스(Halifax)에서 도로시와 재회했다. 그리고 1794년 9월부터는 주로 폐병으로 죽어가던 친구 레즐리 칼버트(Raisley Calvert)와 함께 자냈고, 그동안 그로부터 900파운드의 유산을 얻어냈으며, 그가 죽은 1795년 1월 이후에는 런던으로 가 진보적 지식인 집단과의 교류를 재개했다(Moorman 211-78).

워즈워스의 정치적 활동에 관심을 가진 학자들은 이렇듯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한 이 당시의 기록에서 「공개서한」에 피력된 급진적 정치관에 걸 맞는 현실적인 정치활동의 흔적을 찾아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어떤 학자들은 1793년 초 워즈워스를 조지프 포셋(Joseph Fawcett)의 일

요강좌¹에 데려갔던 사缪엘 니콜슨(Samuel Nicholson)과의 교류를 이 당시 워즈워스의 정치활동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로 간주하기도 한다 (Roe 23-37, Beatty 224-69).² 르구이(Legouis)는 심지어 워즈워스가 와이트섬에 간 것도 그의 지롱드 동료들과 함께 자꼬뱅 정부를 타도할 기회를 엿보기 위해서였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지만(Legouis 35) 워즈워스 전기작가 무어만은 이를 근거없는 추측으로 일축한다(Moorman 231). 1793년 10월초에 워즈워스가 비밀리에 빠리를 방문하여 고사(Gorsas)의 처형광경을 목격했다는 설도 유력하게 제기되었지만 근거가 없기로는 르구이의 주장과 마찬가지였다(Moorman 238-42, Reed 147, Todd 64-65, Gill 77-79).

이러한 주장들에 비해 사소해보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주장을만큼이나 중요한 또 하나의 행적은 워즈워스가 1795년 2월 27일에 당대 저명한 개혁가중 한 사람이었던 윌리엄 프랜드(William Frend)의 집에서 다른 개혁가들, 특히 윌리엄 고드윈(William Godwin)과 만났다는 사실이다(Roe 186-98). 개혁가로서의 워즈워스와 고드윈의 만남은 시인 워즈워스와 코울릿지의 만남만큼이나 의미심장한 사건이었다. 워즈워스의 급진적 정치관이 영국적 맥락에서 실천적 의미를 가졌다면, 다시말하여, 워즈워스가 프랑스에서 배워온 공화주의적 견해를 영국의 개혁운동의 맥락에서 실천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다면, 그러한 시도는 고드윈주의의 영향하에 이루어졌음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고드윈은 워즈워스가 2월 27일에 처음으로 마주친 이래 같은 해 8월 18일까지 적어도 10번이나 방문했을 정도로 규칙적인 교류를 유지했던 유일한 개혁가였을 뿐만 아니라(Roe 194), 실제로 발행되지는 못했지만 워즈워스가 자신의 친구 마修스(William Mathews)와 편지를 통해 계획했던 『월간잡지 자선가』(*The Philanthropist a Monthly Miscellany*)는 그 발간취지와 이념적 관점에 있어서 완전히 고드윈적이었다.³

¹죠지프 포셋은 비국교도 목사로서 1783년부터 1795년까지 일요일마다 정치적 성향이 강한 설교를 했는데 개혁적 성향이 강한 지식인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끌었다. 자세한 정보는 Beatty의 글 참조.

²니콜라스 로우는 워즈워스와 교류한 증거가 있는 니콜슨이 혼 툭(Horne Tooke)이 이끌었던 ‘헌법정보협회(Society for Constitutional Information)’의 회원임을 입증했지만 그것이 워즈워스의 가입여부를 밝혀주는 것은 아니었다.

³『월간잡지 자선가』에 관한 가장 자세한 연구는 Kenneth R. Johnston의 글이다. Johnston은 Moorman과는 달리 1795년 3월부터 1796년 1월까지 Daniel Issac Eaton에 의해 실제로 간행되었던 같은 제목의 잡지『자선가』와 워즈워스의 『월간잡지 자선가』계획 사이에 상당한 유사점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워즈워스가 그 잡지의 편집진에 실제로 가담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워즈워스의 고드윈에 대한 이러한 열정은 의외로 단명한 것이었다. 그것은 워즈워스가 『서곡』(The Prelude)에서 고드윈의 『정치적 정의』(Political Justice)를 “그릇된 상상력이 빚은 작품(“a work/ Of false imagination,” 10권 847-48)”이라는 말로 평가절하하는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지만, 자신이 본받으려 했던 고드윈적 지성을 1796년에 쓰여진 미출판 회곡 『변방사람들』(The Borderers)의 리버스(Rivers)처럼 악마적 인물로 형상화한데서도 간접적으로 확인된다(Dixon 161-64).

그렇다면 워즈워스는 당시 고드윈주의의 어떤 측면을 받아들였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워즈워스가 애당초 고드윈에 그토록 매료된 이유는 무엇이고, 그토록 빨리 그것을 거부하는 까닭은 또 무엇인가? 이 글에서는 워즈워스가 고드윈주의와 관련하여 남긴 두 가지의 일차자료, 『서곡』의 10권과 1794년에 마슈즈(William Mathews)에게 보낸 두 편의 편지를 통해서 이러한 질문에 답하려고 한다.

2. 『서곡』속의 고드윈주의

『서곡』속에서 고드윈주의가 도입되는 것은 워즈워스가 인류의 해방자로서의 프랑스에 대한 환멸을 경험한 이후의 상황을 묘사하는 대목에서이다. 워즈워스는 프랑스혁명의 그러한 변질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원칙에 더욱 더 집착”(stuck/ More firmly to old tenets, 10권 801-2행)하게 되며, 이제는 프랑스가 더 이상 담지하지 못하는 혁명의 이상을 이어줄 사상적 기반을 새롭게 추구하게 된다. 워즈워스는 그러한 사상적 기반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러나 좀더 너그럽게 말한다면,
 짚고 순수한 마음에는 그러한 꿈이 마음에 들었다.
 극단적인 것에 즐거워하고, 인간 이성의 그 적나라한 모습을
 열렬한 지지의 대상으로 삼는 것도 조금도 마다하지 않았다.
 얼마나 큰 기쁨이었던가! 얼마나 큰 영광이었던가!
 혼자 쌓은 지식과 혼자 정한 법칙속에서
 세상의 온갖 약점들을 폐뚫어보고
 과거의 존재를 허약하게 만들던 자연과 시공간의 우연성을
 단호하게 털어버리는 그 숙련된 솜씨로
 개인적 정신의 자유를 유일한 기반으로하여 사회적 자유를 구축하는 것.
 맹목적으로 제한하는 일반적 법칙에 구애됨없이 당당한 태도로
 단 하나의 지침만을 받아들이는 개인적 정신의 자유는
 독립적인 지성의 마음속에서

상황을 비추는 한줄기 빛으로 번쩍였다. (10권 815-30행)

But, speaking more in charity, the dream
 Was flattering to the young ingenuous mind,
 Pleased with extremes, and not the least with that
 Which makes the human Reason's naked self
 The object of its fervour. What delight!
 How glorious! in self-knowledge and self-rule,
 To look through all the frailties of the world,
 And, with a resolute mastery shaking off
 The accidents of nature, time, and place,
 That make up the weak being of the past,
 Build social freedom on its only basis,
 The freedom of the individual mind,
 Which, to the blind restraints of general laws
 Superior, magisterially adopts
 One guide, the light of circumstances, flashed
 Upon an independent intellect.

워즈워스가 새롭게 발견한 사상적 기반이 다름아닌 고드윈주의였음을 이 대목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우선, “개인적 정신의 자유를 유일한 기반으로 하여 사회적 자유를 구축하는 것”은 고드윈주의의 핵심을 담고 있는 표현이다. 고드윈주의의 가장 독특한 주장은 사회의 정치적 정의가 오로지 “개인적 판단력의 제한없는 행사(uncontrolled exercise of private judgment)”를 통해서만 성취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성적인 존재에게는 정의라는 단 한가지의 행동규범만이 있을 수 있고, 그 규범을 담보하는 하나의 방식은 그의 이해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 개인적인 판단의 보편적인 행사는 형언할 수 없을만큼 너무나 아름다운 원칙이기 때문에 진정한 정치가라면 가능한 한 드물게 적은 회수만 그 과정에 관여 하려 할 것임이 분명하다. (Godwin 200, 208)

“개인적 정신의 자유를 유일한 기반으로 하여 사회적 자유를 구축하는 것”이라는 워즈워스의 모순어법적인 표현은 사실상 고드윈의 이러한 핵심적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독립적인 지성”이라는 어귀도 고드윈을 강력하게 연상시키는 표현인데, 고드윈에게는 개인적 판단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일이야말로 “정치적 정의”的 성취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조때문에 고드윈은 독립적인 지성의 제한없는 활동을 방해하는 국회밖의 선동정치나 국가의 사상적 탄압에 모두 반대했다.

고드윈주의의 또 다른 측면은 “혼자 쌓은 지식과 혼자 정한 법칙”이라 표현에서도 드러나는데 고드윈에 의하면 인간의 정신은 편견이나 압력에서 자유로운 외부로부터의 지식의 유입이 없이도 진실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고(Philip 89-95), “혼자 쌓은 지식과 혼자 정한 법칙”은 이러한 인간정신의 자족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위 인용문의 냉소적인 어조에서도 이미 드러나는 바이지만, 『서곡』에서의 워즈워스는 자신의 고드윈주의자로서의 과거에 대하여 가치없는 비판을 가한다.

나는 칼을 손에 들고
 덜 민감한 부분들에서 멈추는 일 없이
 내 최고의 기술을 발휘하여 노력했다.
 사회라는 살아있는 몸을
 심장까지라도 파헤쳐보려고.
 일말의 후회도 없이
 나는 내 사색을 밀고 나갔다.
 맞아, 난 자연의 가장 성스러운 부분에
 발을 옮겨놓은 것이다. (10권 873-79행)

I took the knife in hand
 And stopping not at parts less sensitive,
 Endeavoured with my best of skill to probe
 The living body of society
 Even to the heart; I pushed without remorse
 My speculations forward; yea, set foot
 On Natures holiest place.

이러한 신성모독적인 사상적 실험은 자신을 “결국 상반된 것들에 지쳐고 진력나, 실망감속에 모든 도덕적 문제들을 포기(in fine,/ Sick, wearied out with contrarieties,/ yielded up moral questions in despair)”(898-901 행)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도록 했다는 것이다.

워즈워스는 고드윈주의가 절망의 원인이 된 이유를 프랑스혁명의 변질이나 개혁운동에 대한 정부의 극심한 탄압, 근본적인 개혁전망의 부재 등이 아니라 고드윈주의 자체의 반인간적, 반자연적 성격에서 찾는다. 고드윈적 논리와 고드윈적 실천이 “자연 안에 있지 않고(does not lie in nature)”(844행), “경험과 진실의 한계를 넘어선 곳에 놓여있기(placed beyond/ The limits of experience and of truth)”(848-49행)때문이라는 것이다. 워즈워스는 여기서 버크(Burke)의 관점을 채택하면서 자신의 보수적 당파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사회를 몸이라는 유기적 구성을에 비

유한 것도 그렇거니와 고드윈주의처럼 자연에 반하고 “경험”과 “진실”을 넘어서는 수단으로는 사회라는 유기적 구성을 파괴할 뿐이라는 주장은 자연의 이름으로 프랑스의 사상실험을 비판한 버크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경험과 진실을 자연스럽게 동열에 놓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워즈워스의 보수적 편향을 보여주는 강력한 지표인데, 그것은 1790년대 전반부의 혁명논쟁에서 경험과 이성은 진리의 인식방법으로서 각각 보수와 진보의 입장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철학적 대립항이었기 때문이다(Dickinson 232-69).

워즈워스가 자신의 개혁가로서의 활동 후은 이념적 실천을 고드윈주의에 대한 일시적 심취로 단순화하여 제시하고 그것을 버크적인 논리로 비판하고 있는 것은 워즈워스가 자신의 정치적 과거를 묘사하는 전략을 잘 보여준다. 워즈워스는 『서곡』집필 당시에는 평가절하된(Philp 224-30) 고드윈이라는 개혁가들의 영웅을 자신의 사상적 지주로 설정함으로써 자신의 급진적 정치관과 1790년대 중반의 사상적 실천이 신념에 입각한 진지한 정치활동이었다고 보다는 당대의 사상적 영웅에 대한 일시적인 열정이었고, 있을 수 있는 짧은 날의 과오였다고 설명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워즈워스의 이러한 시적 회고를 어디까지 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러한 워즈워스의 시적 진술을 우리가 가진 빈약한 전기적 사실들에 의거하여 전적으로 확인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다. 단지 워즈워스가 자신의 사상적 편력을 서술하는 대목에서 연대기적 순서를 무시했다는 것, 그러면서도 자신의 사상적 일관성을 유달리 강조하는 것이 그가 당시에 겪었던 사상적 혼란의 깊이를 역설적으로 시사하면서 그가 고드윈을 수용하거나 거부했던 것에는 『서곡』에서의 주장보다는 더 심각한 어떤 실용적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짐작을 하게 할 뿐이다. 이러한 짐작은 워즈워스가 고드윈주의자였다고 믿어지는 시기인 1794년에 쓰여진 그의 편지에서 보다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있다.

3. 『월간잡지 자선가』제획에 드려난 고드윈주의와 워즈워스의 “전향(conversion)”

프랑스에서 돌아온 워즈워스의 정치적 견해를 직접적으로 담고 있는 유일한 자료는 그가 1794년에 친구 마쓰즈에게 보낸 일련의 편지들뿐이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마쓰즈는 워즈워스에게 『월간잡지 자선가』라는 잡지의 창간계획을 알려주면서 공동편집자직을 제의한다. 이 잡지는 「공개서한」이 그러했듯 결국 세상에 나오지 못한채 하나의 계획으로 끝나고 말았

지만, 이러한 계획은 워즈워스의 고드윈주의가 당대에는 상당한 실천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편지에 고드윈주의적 논리로 무장된 정치잡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있을 뿐만 아니라, 불과 1년전에 피력되었던 공화주의적 견해와 상반되는 듯한 발언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이 편지들은 한편으로는 개혁가 워즈워스의 실제 활동에 대한 학자들의 희망섞인 추측을 확인해주는 듯하면서 동시에 이른바 워즈워스의 정치적 “전향”에 대한 최초의 증거를 제공함으로써 개혁가 워즈워스의 실존 가능성은 최소화하고 있기도 하다. 이것은 워즈워스의 고드윈주의적 단계를 이른바 정치적 “전향”的 문제와 관련하여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서곡』에서의 워즈워스는 고드윈주의를 공화주의라는 “예전의 원칙”的 연장으로 설명하면서 그것이 궁극적으로 정치적 개혁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게 하는 계가로 작용했음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프랑스식 공화주의와 고드윈의 철학적 급진주의는 개혁의 방법론이나 당대 영국의 현실정치에 갖는 의미에 있어서 판이하게 달랐고, 그러한 차이는 워즈워스가 고드윈을 수용하고 타기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

고드윈과 관련하여 의미있는 발언은 1794년 5월 23일자 편지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다. 그때는 의회개혁을 위한 청원운동의 형태로 진행되던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하루가 다르게 거세어지던 시점이었다. 가장 급진적인 성향의 정치조직이었던 런던통신협회(London Corresponding Society)의 지도자였던 토마스 하디(Thomas Hardy)가 5월 12일에 구속되었고, 그 며칠 후에는 명망있는 개혁운동가 혼 투(Horne Tooke)도 투옥되었다. 그리고 5월 17일에는 인신보호율(Habeas Corpus)이 정지되었다(Goodwin 307-58).

마슈즈가 워즈워스와 또 다른 한 친구에게 『월간잡지 자선가』의 창간을 제의하며 편집진에 가담할 것을 권유한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였다. 워즈워스는 일단 이러한 제의를 진심으로 환영하는 입장이었는데, 아마도 그것이 교구목사가 되지 않고 문필생활을 계속하고 싶다는 종래의 뜻과 합치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Wordsworth 1967, 76). 그러나 워즈워스는 완전한 수락이전에 여러가지를 확인해야했다. 워즈워스의 첫번째 질문은 그들이 어떤 종류의 독자를 겨냥해야 하는가, 그들의 능력으로 교훈이나 즐거움을 제공하기에 가장 알맞은 분야는 무엇인가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출판계에서 새로운 잡지가 가질수 있는 잠재적 독자층과 이념적 노선에 대한 질문인 것이다. 워즈워스는 자신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우리는 서로의 정치적 견해에 대하여 무지해서는 않된다. 나는 여기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다음과 같이 엄숙하게 선언한다. 앞으로 나의 글에서는 추방이나 투옥 등등의 수단을 통하여 현재 강요되는 이념들이 온갖 종류의 고통을 유발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도록 독자들을 유도할 수 있는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정치적 견해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아마도 너는 내가 민주주의자라고 불리는 그 밑살맞은 계급의 구성원중 하나이며 앞으로도 줄곧 그럴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있겠지. (Wordsworth 1935, 119)

워즈워스와 마슈즈가 그들의 정치적 견해를 미리 조율해야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그들이 계획하는 정치월간지는 그 성격상 당대 영국사회의 주요한 정치적 쟁점들을 다루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잡지의 일관성있는 이념적 관점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들의 잡지 역시 시장의 논리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업적 기획으로서 특정한 독자층을 겨냥해야하고, 프랑스혁명에 관한 팜플렛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당시의 정치잡지의 독자층은 구매자들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어있었다. 따라서 워즈워스가 자신을 “민주주의자라고 불리는 그 밑살맞은 계급의 구성원중 하나”라고 냉소적으로 묘사한 것은 이미 서로가 짐작하고있는 상호간의 정치적 성향을 내비친 것이기도 하지만, 정치잡지가 가장 활발하게 유통되는 “민주주의자”들의 시장을 제대로 겨냥하여 최대한의 독자를 확보해보자는 실용적인 발상의 표현이기도 하다.

사실상 워즈워스의 선언의 내용이 담긴 문장이 이중부정과 말꼬리를 헤리는 열거법(“추방이나 투옥등등의”)과 같은 복잡한 수사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이면에 워즈워스의 불안한 심경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1790년 당시의 서신교환은 당국의 검열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이다(Wordsworth 1935, 121). 이 편지가 쓰여지기 며칠전에 저명한 개혁가들의 체포되고 인신보호율이 정지되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워즈워스가 아무리 말을 돌렸다고 하더라도 반정부적인 입장을 표명했다는 것은 용감한 일이었다. 그러나 “민주주의자라고 하는 그 밑살맞은 계급”이라는 냉소적인 표현은 가만히 뜯어보면 표면적인 의미보다 덜 과격한 얘기일 수도 있다. 그것은 자신이 정말로 민주주의자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당시 영국정부에 의해 민주주의자라는 죄목으로 부당하게 기소되어있던 일군의 개혁가들과 뜻을 같이한다는 취지의 발언일 수도 있는 것이다(Roe 157). 과감한 정치적 선언을 하는 것같이 보이는 이 편지에서 워즈워스는 사실상 상대방인 마슈즈의 정확한 입장표명때까지 자신의 정치적 관점에 대한 구체적 표현을 보류하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워즈워스가 자신의 입장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마슈즈의 입장이 자신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쓰여진 6월 8일자 편지에서였다. 여기에서 워즈워스는 군주와 귀족에 의해 지배되는 모든 종류의 정부에 대하여 여전히 반대하고 있고, 자신은 “영국 현정체제의 승배자중의 하나가 아님”을 공언함으로써 「공개서한」의 공화주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변화의 기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지성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최근 몇년간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정부에 관한 문제들에 대한 의견변화”를 설명하는 대목이다.

나는 시민적 정책을 위한 보다 더 훌륭한 체제가 우리 사회에서 수립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을 기울이는데 있어서는 그러한 경주가 진행되는 경기장이 가진 특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내가 반대하는 제도들의 파괴는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다. 혁명이라는 것은 그것에 대한 생각만으로도 나를 뒤로 물려서게 한다. 그러나 대내외정책에 대한 우리의 행동거지가 지난 2년과 같아서야 그러한 끔찍한 사태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Wordsworth 1935, 124)

「공개서한」의 일차적인 목표가 공화주의를 새로운 정치체제를 규정하는 이념으로서 응호하는 것이었음을 감안할 때, 공화주의 정부라는 용어 대신 “시민적 정책을 위한 보다 더 훌륭한 체제”라는 장황한 표현을 선택한 것에서 이미 변화의 기미가 느껴진다. 그러나 결정적인 발언은 “혁명이라는 것은 그것에 대한 생각만으로도 나를 뒤로 물려서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변화이다. 「공개서한」에서는 혁명이 폭력과 같은 불가피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촉진시켜야 할 과정이었던 것에 반해 여기에서는 가능하기만 하다면 막아야 할 것으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워즈워스의 정치적 입장변화는 다음의 발언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도 내가 모든 종류의 폭력의 강력한 적이라는 사실을 덧붙일 필요가 있을까? 나는 정의와 무력, 이성과 속박 사이에, 오만과 무지의 완고함이 그런 것을 필요하게 한다는 것 말고는 어떠한 연관도 발견할 수 없다. 나는 프랑스인들의 비참한 처지에 대해 개탄한다. (Wordsworth 1935, 124)

이러한 발언은 공개서한의 한 대목과 재미있는 대조가 된다.

아뿔싸, 인간의 완고함과 왜곡된 성품때문에 자유는 폭정을 전복하기 위하여 바로 그 폭정의 무기를 빌지 않을 수 없고, 평화롭게 통치하기 위하여

폭력에 의하여 스스로를 확립하지 않으면 안된다. 자유는 그러한 엄정한 필요성을 개탄한다. 그러나 민중과 민중의 최고법의 안전이 확보된다는 것에 의해 위로받는다.... 정치적 미덕은 도덕적 미덕을 희생 함으로써만 발전되는 것이다. (Wordsworth 1974, 33-34)

폭력에 대한 워즈워스의 입장변화, 다시 말해, 폭력을 조건부이긴 하지만 하나의 엄정한 필요성으로 받아들였던 것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결코 승인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했다는 것은 상당한 변화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보이는 두 개의 폭력관에서 흥미롭게도 공통되는 것은 인간성의 타락에 대한 서글픈 인식이다. 이러한 인식은 “인간의 완고함과 왜곡된 성품(the obstinacy & perversion of men)”, 그리고 “오만과 무지의 완고함(the obstinacy of pride and ignorance)”처럼 놀랄만큼 유사한 어휘로 표현되어있는데 이것은 워즈워스의 폭력관이 결보기만큼 그렇게 대조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인간의 “완고함”이라는 특성이 지속되는 한 아무리 민주적인 정부를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정의와 폭력,” “이성과 속박”이 결합될 수밖에 없고, 이것은 “평화로운 통치를 위하여 폭력으로 스스로를 확립해야하는 필요성”은 여전하다는 뜻이 되며, 그렇다면 이러한 정치적 현실에 대한 워즈워스의 판단자체는 바뀌지 않은 셈이다.

그러나 확실히 달라진 것은 프랑스에 대한 워즈워스의 태도다. 「공개서한」의 가장 중요한 목적중의 하나는 혁명을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프랑스혁명을 응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편지에서는 “평화로운 통치를 위하여 폭력에 의지해야하는 엄정한 필요성”이 아니라 “프랑스인들의 비참한 처지를 개탄”함으로써 자기 스스로 「공개서한」에서 그토록 경멸해 마지않았던 “유행을 따르는 슬픔의 안일한 비명소리”(Wordsworth 1974, 32)에 동참하는 셈이 된 것이다. 이것은 의미심장한 변화이다. 왜냐하면 1794년 중반에 이미 프랑스의 체제가 개혁의 모범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워즈워스는 이제 더 이상 프랑스식 공화주의 정부를 그가 여전히 거부하는 군주제의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었고, 프랑스식의 폭력적 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게 되었으며, 당시 공포정치체제 아래에 있던 프랑스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입장의 변화를 불러일으킨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추측이 가능하다. 예를들면 프랑스혁명의 진전과정이 그의 낙관적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영국내에서 개혁가들에 대한 심한 탄압을 가한 것이 그의 강경한 태도를 누그러뜨린 것일 수도 있다. 혹은 레슬리 칼버트의

유산상속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된 워즈워스의 시적 천재성에 대한 자각이 정치관에 영향을 미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인용된 편지의 한 대목이 그의 정치관의 변화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것 같다.

그러한 경주가 진행되는 경기장의 특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 (Words-worth 1935, 124)

다시 말해서 워즈워스는 이제 영국의 정치적 현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1793년 5월 그레이경(Grey)은 그동안의 의회청원운동의 내용들을 집대성하여 그것을 반영하는 선거법개정법안을 상정시켰으나 부결되고 말았다. 이것은 개혁전략으로서 합법적 의회청원운동이 그 유효성을 상실했다는 뜻이었다. 보다 의미심장한 것은 에딘버러공회(Edinburgh Convention)의 실패였는데 이것은 토마스 폐인이 제안했던 국민공회의 소집이 영국적 맥락에서는 실효성이 없음을 증명하는 사건이었다. 게다가 유명한 개혁가들의 잇단 구속은 영국개혁운동의 궁극적 붕괴를 보여주는 증거로 받아들여졌다(Goodwin 268-306). “경기장의 특성”에 대한 인식은 워즈워스로 하여금 영국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경주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시켰던 것 같다.

그러한 다른 경주의 규칙을 워즈워스에게 제공한 사람이 바로 윌리엄 고드윈이었다. 워즈워스가 정확히 언제 고드윈주의를 받아들였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개인의 정신을 계몽하는 것이 정치적 정의를 성취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고드윈의 논리는 개혁을 위한 거의 모든 집단적 운동들이 실패로 돌아가고난 후에 훨씬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1794년 중반경이라고 추측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구속되어있던 개혁가들이 고드윈이 쓴 「개략적 비평(Cursory Strictures)」에 힘입어 풀려난 12월 이후에 고드윈주의에 대한 매력이 더해졌겠지만⁴, 고드윈주의의 영향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6월 8일자 편지에서부터이다. 가령 다음과 같은 대목의 주된 논지는 전형적으로 고드윈적이다.

계몽된 인류의 친구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또 있다. 모든 때에 모든 장소에 적용될 수 있는 사회질서의 일반원칙들을 설명하거나 강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않된다는 것이다. 그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 어떤 정

⁴고드윈은 존 텔웰(John Thelwell), 혼 투크(Horne Tooke), 토마스 하디(Thomas Hardy) 등 당대의 대표적 개혁가들이 1794년 10월 6일 대역죄(High Treason)로 기소되자 10월 21일자 Morning Chronicle지에 이 글을 발표하여 이들의 석방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Philp 117-18.

부든지 그러한 원칙을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점점 더 그 정부의 설립목적을 벗어나게 되는 그러한 정치적 정의의 원칙들을 전파해야한다. 이러한 원칙들에 대한 지식은 필연적으로 선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 그 원칙들은 폭정으로부터 완전히 보호받는 것을 포함하고, 개혁의 집행자들을 인도하며, 혁명이 우리를 괴롭힌다면 그 원칙만이 혁명의 공포를 완화하고 침착하게 자유를 확립할 수 있다. (Wordsworth 1935, 124)

세상에는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단 한가지 형태의 진실이 있을 뿐이라는 단선적인 논리와 진리에 대한 인식이 필연적으로 진리에 대한 실행으로 연결된다는 결정론적 주장은 고드윈주의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진리의 함양에 대하여라는 제목을 가진『정치적 정의』의 4권 5절에서 고드윈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사람들이 여러가지 본질적인 특성에 있어서 서로 다른 점보다 비슷한 점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면, 또 그들과 관련하여 성취될 수 있는 최상의 목표들이 그들을 자유롭고, 선하고 지혜롭게 한다면, 이러한 공통의 목표를 추진하는 단 하나의 최선의 방법, 인간의 본성에 대한 원칙들로부터 연역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최선의 사회적 존재양식이 틀림없이 있다. 진실이 하나라면 우리가 서로에게 가지는 의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단 하나의 진실의 규약이 존재함에 틀림없다. 탐구는 '정치적 정의와 행복의 원칙들을 확인하는 최상의 방식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원칙들을 도입하여 확립하는 최고의 방식이기도 하다. (Godwin 314)

워즈워스와 고드윈이 모두 자유로운 탐구와 자유로운 표현이 정치적 자유의 실현을 위하여 충족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다. 워즈워스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탐구의 자유야말로 내가 바라는 것의 전부이다. 너무 신성해서 탐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없다.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장 극악한 원리들이 전파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낫다. 토론의 장소를 개방하고 방해하지 말라. 그러면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Wordsworth 1935, 125)

고드윈에게 있어서 “개인적 판단의 제한받지않는 행사”는 진리와 선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Godwin 181-82). 이러한 논리는 당연하게도 어떤 개인도 어떤 의견을 가지고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의 원칙과 연결된다. 고드윈은 “이견에 대한 정치적 통제가 갖는 일반적인 효과”라는 제목의 4권 1절에서 다음과 같

이 주장했다.

권위의 힘을 빌어 하나의 공통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억압하려는 시도 보다 더 비이성적인 것은 없다....정부가 스스로 생각하는 수고를 우리에게서 덜어주려고 할 때마다 빚어지는 유일한 결과는 정신적 마비와 백지상태뿐이다. (Godwin 230)

고드윈이 탐구의 자유를 주장했던 최초의 인물은 물론 아니었다. 사실 고드윈에게 그러한 관념을 넣어준 사람들은 계몽주의적 경향을 가진 미국 교도 성직자들이었다(Philp 15-27). 또한 고드윈과 워즈워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세습군주제에 대한 반대의견은 당시 개혁가 집단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었던 논리였다(Roberts 593). 워즈워스가 고드윈으로부터 독특하게 이어받은 점은 개혁과 혁명에 대한 관점인데, 이것은 혁명에 대한 워즈워스의 입장변화에 반영되어있다. 워즈워스가 “혁명이라는 것은 그것에 대한 생각만으로도 나를 뒤로 물러서게 한다”고 말한 것은 반드시 고드윈의 입장과 연관시키지 않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영국사회에서는 1794년 중반에 이르면 혁명이 곧 무차별적이고 체계적인 대학살과 동의어로 쓰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식의 혁명이라면 영국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은 많은 개혁가들의 합의된 의견이었다. 그러나 당시 활발한 활동을 벌이다 정부의 탄압을 받고있었던 개혁가들의 조직에 대한 비판은 고드윈과 연관짓지 않고는 이해하기 어렵다.

민중이 정치적 문제에 관하여 계몽되어야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나는 사람들의 정념에 호소하는 모든 선동적인 연설들의 잘못을 비판하는 바이다. 설령 그것이 사람들의 정념을 좋은 목적으로 유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도 마찬가지이다. (Wordsworth 1935, 125)

「공개서한」에서도 영국내의 개혁운동에 관한 워즈워스의 태도는 결코 열광적인 지지라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동료개혁가로서의 기본적인 동의과 지지의 입장만큼은 분명하게 표현되어있었다. 특히 「공개서한」에서 프리스틀리(Joseph Priestly)의 집을 불태운 폭도를 사주한 것은 개혁가들이 아니라 친정부적 조직이었다고 고발하며 정부의 대중선동행위를 강력하게 비판했던 것을 감안하면(Wordswoth 1974, 38), 이러한 비난은 더욱 놀라운 일이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선동의 주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념에 호소하여 선동하는 일 자체의 부당성을 강조하고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원론적인 비판의 구체적 대상들이 이번에는 1795년 말

“두가지의 재갈물리는 법”(Two Gagging Acts)에 의해 금지될 때까지 성황을 이루었던 런던통신협회의 대중집회와 존 텔웰(John Thelwell)이나 콜릿지(Samuel Taylor Coleridge)의 대중정치연설등 주로 개혁가들의 집회였다는 것이 시사하는 바는 워즈워스가 텔웰이나 콜릿지같은 개혁가들의 진영에 아예 등을 돌린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개혁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기 시작했다는 점이고, 그러한 변화에는 고드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고드윈은 자신이 모든 종류의 정치적 조직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기위하여 정치적 정의의 한 절을 할애하고 있는데, 선동적 사주는 그러한 반대이유의 중요한 일부이다.

정치적 조직들에 꼭 필요한 것들중의 하나가 열렬한 연설과 옹변이다. 수많은 조직들의 구성원 대부분은 이러한 열렬한 연설을 나머지 인류에게 전파될 실용적인 진리의 담지자가 되기위하여 다녀야 할 하나의 학교처럼 여겼다. 그러나 열렬한 연설과 옹변은 지식이 아닌 정념으로 이어지고...진리는 불비는 강당이나 시끄러운 토론으로 얻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 (Godwin 285)

고드윈이 선동정치에 대해 가졌던 이러한 반감은 그로하여금 개혁운동지도자들과의 개인적인 친분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위한 어떠한 조직에도 참여하지 않도록 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초연한 입장은 『정치적 정의』의 비싼 가격과 함께 정부로 하여금 그를 “해롭지 않은” 사상가로 분류하도록 만들었다. 따라서 고드윈은 당시 대부분의 개혁가들과는 달리 정부로부터 어떠한 탄압도 받지않았고, 체포의 위협으로부터도 자유로웠다. 개혁의 이상은 이상대로 유지하면서 탄압과 체포의 대상이 되지않았던 고드윈의 독특한 위치는 워즈워스로 하여금 그의 사상을 더욱 매력적으로 느끼도록 했는지도 모른다.

워즈워스가 고드윈주의를 받아들이게 된 것에는 실용적인 이유도 있었다. 당시의 영국개혁운동은 워즈워스의 공화주의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고, 프랑스를 모범으로 삼는 워즈워스의 공화주의 역시 공포정치의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러한 사상적 틸데마속에서 워즈워스가 개혁가로서의 정치적 이상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정치적 실천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은 사실상 고드윈적 철학적 급진주의 뿐이었다.

나는 대중들이 어둠속에 걷고있다는 것을 알고있다. 나는 그들이 번개가 내는 빛이나 허망한 번쩍거림, 혹은 덧없는 유성의 불빛에 의지하여 길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그들 하나하나의 손에 횃불을 들려주고 싶다. (Words-

worth 1935, 125)

월간 정치잡지인 *공동*으로 편집해보자는 마슈즈의 제안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이상적인 기회처럼 보였을 것이다. 고드윈에 의하면 계몽된 엘리 또는 대중들을 진리와 선으로 이끄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문학적, 지적 엘리 또는 고드윈의 글에서 “학문적, 명상적 인간,” “자유주의적으로 교육받은 사려 깊은 구성원,” “민중의 지도자와 교육자” 등과 같이 다양하게 표현되는데, 고드윈에 의하면 이들이야 말로 “자비로운 일(the work of benevolence)”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사회적 집단이다.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일정한 수의 개인들을 상상해보자. 독서와 명상으로 그들의 마음을 살찌우고, 솔직하고 거칠없는 대화속에서 그들의 생각을 비교하고, 그들의 의문을 제시하며, 그들 상호간의 어려움들을 점검하고, 그들의 성정을 명료하고도 활기있게 전달하는 방식을 함양하는 그런 개인들 말이다. 이러한 그들의 상호대화를 그들 내부사회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인식한 진리를 광범위하게 전파하기를 원한다고 쳐보자. 그들이 보이는 모범이 공평무사와 예시적 명확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온화한 기질과 포괄적인 자비의 정신으로 특징지어진다고 생각해보자. 그런 개인들이 있다면 우리는 영구적으로 근거가 확보되어 그 전파수단을 격정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지식에 대한 개념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가르침을 들은 대중들은 그들이 들은 바를 다른 대중들에게 전파하도록 권장받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가르침의 범위는 끝없이 넓어질 것이다. 이성은 전파되고 야만적이고 비지성적 공감은 그렇지 못할 것이다. (Godwin 289-90)

고드윈은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많은 진보적 지식인들과 교분을 나누고 있었다. 고드윈은 가끔씩 토론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개혁가들의 조직활동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지만 당대의 정치적 논쟁에는 빠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Kwiatkowski 60-62). 그리고 워즈워스가 이 편지를 쓰고난 몇 달 후, 고드윈은 「개략적 비평」으로 대역죄로 재판을 받던 개혁가들을 석방시킴으로써 자신과 같은 학문적, 명상적 인간도 실제정치에서 일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입증했던 것이다(Philp 103-19).

4. 워즈워스의 급진주의와 고드윈주의

워즈워스는 『월간잡지 자선가』 발간계획을 11월 7일 이전에 완전히 포기하게 되지만(Wordsworth 1935, 126), 우매한 민중을 무지의 암흑으로

부터 구출하는 문학적 지성이라는 고드윈적 이상만은 그의 마음에 영원한 자취를 남기고, 그것은 후일 철학적 지혜를 담지한 노인의 이미지와 이상적 시인의 자화상이라는 형태로 되살아난다. 워즈워스가 고드윈을 직접 만났던 1795년 2월 27일은 개혁의 구원자로서의 고드윈의 명성이 정점에 달했을 때였다. 니콜라스 로우가 지적하는대로 워즈워스가 고드윈을 개인적으로 접촉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고드윈적 열정은 오히려 약화되기 시작했는지도 모른다(Roe 197). 워즈워스의 개인적 감정이 어떠했는지는 모르지만 고드윈의 대안이 1795년 “두가지의 재갈물리는 법”的 발효 이후 크게 설득력을 잃었고 따라서 그의 명성도 급격히 소멸되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다(Philp 214-30).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즈워스의 고드윈주의는 그에게 자신의 혁명적 열정을 영국적 맥락에서 재검토하고, 1790년 중반의 가혹한 정치적 현실에서 개혁적 지식인이 수행해야 할 사회적 역할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게 했다는 점에서 그의 정신사에 중요한 계기로 기록될 만하다. 기존의 억압적인 정부당국에 대한 고드윈의 엄정한 비판과 그에 못지않게 엄정한 개혁 운동조직에 대한 비판, 이상적 사회에 대한 합리적이고 포괄적인 청사진, 그리고 개혁가들에 대한 대역죄 재판에서 드러난 고드윈적 지성의 힘 등이 워즈워스로 하여금 고드윈주의를 자신의 인도주의적 열정을 회생하지 않고도 프랑스적 공화주의에서 탈피하는 방식, 그리하여 자신에게 보다 현실적으로 적합한 정치적 역할을 확립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받아들이도록 했다. 워즈워스의 고드윈주의는 비록 단명하긴 했지만 당대에는 『서곡』의 회고에 드러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진지한 사상적 실천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철학적 지혜를 가진 현인이라는 워즈워스의 시인관이 형성되는 데에도 깊은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이화여대〉

인용 문헌

1. Primary Sources

- Wordsworth, William. *The Letters of William and Dorothy Wordsworth: The Early Years, 1787-1805*. Ed. E.de Selincourt. Oxford: Oxford UP, 1935.
 Wordsworth, William. *The Prose Works of William Wordsworth*. Vol 1. Ed. W.J. B. Owen and J.W. Smyser. Oxford: Oxford UP, 1974.
 Wordsworth, William. *William Wordsworth: The Prelude, a Parallel Text*. Ed. J. C. Maxwell. Harmondsworth: Penguin, 1971.

2. Secondary Sources

- 박찬길. 「워즈워스의 급진적 정치관 재론」. 『안파 밖』. 창작과 비평사, 1996 하반기, 214-40.
- Beatty, Arthur. "Joseph Fawcett: The Art of War: Its Relation to the earlier Development of William Wordsworth." *University of Wisconsin Studies in Language and Literature*. 2(1918): 224-69.
- Cone, Carl B. *The English Jacobins: Reformers in the late 18th century England*. New York:Scribners, 1968.
- Dickinson, H.T. *Liberty and Property: Political Ideology in Eighteenth Century Britain*. New York: Helmes & Meier, 1977.
- Dixon, Josie. "Revolutionary Ideals and Romantic Irony: The Godwinian Inheritance in Literature." *Revolution and English Romanticism: Politics and Rhetoric*. Ed. Hanley, Keith and Seldan, Raman. Hertford: Harvester Wheatsheaf, 1990: 147-68.
- Gill, Stephen. *William Wordsworth: A Life*. Oxford: Clarendon, 1989.
- Godwin, William. *Enquiry Concerning Political Justice*. Ed. Issac Kramnick. Third Edition of 1797. Harmondsworth: Penguin, 1985.
- Goodwin, Alfred. *The Friends of Liberty: The English Democratic Reform Movement in the Age of the French Revolution*. London: Hutchinson, 1979.
- Grob, Alan. "Wordsworth and Godwin: A Reassessment." *Studies in Romanticism*. (1967): 98-119.
- Johnston, Kenneth R. "Philanthropy or Treason? Wordsworth as 'Active Partisan'." *Studies in Romanticism*. 25(1986): 371-409.
- Kwiatkowski, Hieronim S. *Wordsworth and Godwin: A Study of Influence*. unpublished Ph.D. thesis. Glasgow: Glasgow University, 1989.
- Legouis, Emile. *William Wordsworth and Annette Vallon*. London: J.M. Dent & Sons, 1922.
- Moorman, Mary. *William Wordsworth, A Biography: The Early Years, 1770-1803*. Oxford: Oxford UP, 1957.
- Philp, Mark. *Godwin's Political Justice*. London: Duckworth, 1986.
- Reed, Mark. *Wordsworth: The Chronology of the Early Years, 1770-1799*. Cambridge, Mass.: Harvard UP, 1967.
- Roberts, Charles W. "The Influence of Godwin on Wordsworth's Letter to the Bishop of Llandaff." *Studies in Philology*. 29(1932): 588-606.
- Roe, Nicholas. *Wordsworth and Coleridge: The Radical Years*. Oxford: Oxford UP, 1988.
- Todd, F.M. *Politics and The Poet: A Study of Wordsworth*. London: Norwood Editions, 1957.

Wordsworth's Godwinism

Abstract

Park, Chankil

This paper analyses Wordsworth's two different texts, Book 10 of *The Prelude*(1805) and his letters to Mathews written in 1794 to explain the role of Godwin's radical philosophy in Wordsworth's "conversion" from a potentially dangerous reformer into the author of *Lyrical Ballads*.

In the analysis of *The Prelude*, first of all, Wordsworth's own recollection of his political past is critically reviewed with reference to its Godwinian content. Wordsworth describes his past Godwinian from a distinctively Burkean point of view that condemns 'Reason's naked self' in the name of nature and experience. Wordsworth's possible commitment to the contemporary British reform movement, as a result, is devaluated as nothing more than a youthful error rectified by "a living help" from his poet friend Coleridge.

Secondly, Wordsworth's contemporary political stance articulated in his letters to Mathews is examined in connection with his Godwinian project of a monthly political journal called *The Philanthropist*. Wordsworth's political "conversion" which is said to be revealed for the first time in these letters is not as drastic as commonly believed. What Wordsworth recanted in 1794, in fact, was not his democratic political ideal itself but just his support to France as the model of British political reform. Godwin's philosophy was particularly attractive to Wordsworth in this context because it was offered as an apt replacement of France as the guiding light of British democracy.

The conclusion is that Wordsworth's Godwinism was much more serious ideological commitment to the contemporary British politics than the Wordsworth of *The Prelude* wanted to suggest; it was the ideological vehicle through which Wordsworth attempted to remould his France-oriented republicanism into a new political ideology that was not only closer to the original idea of the French Revolution but also more workable in the political reality of the 1790s' Britain.